

호남신문 자매지 2010년 8월 30일 창간

(대표전화) 062-229-6000

1946년 10월 26일 창간

i-honam.com

제 3507호

(윤달 2월 6일) **2023년 3월 27일 월요일**

"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"

현역거취·선거제도·공천를…광주정치권 '술렁'

송갑석 최고위원행 · '검수완박' 민형배 복당 초미 관심 선거제도 개편 · 공천 룰도 뜨거운 감자…정가 예의주시 변수 따라 유・불리 셈법 복잡…국힘, 군소정당도 분주

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광주 지역 정치권이 일부 현역 의원 들을 둘러싼 거취 문제와 '뜨거운 감자'인 선거 제도, 공천률 등을 놓고 정중동 분위기 속에 술 렁이고 있다.

대형 변수가 적지 않다보니, 일찌감치 전선 에 뛰어든 입지자들의 심경도 복잡해지고 있 고, 각자 유·불리를 따지며 정가 추이에 촉각 을 곤두세우고 있다.

2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부 의 원들의 거취 문제가 지역을 넘어 중앙정가에 서도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당내 경선과 공천 레이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.

거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의원은 지난 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마한 송갑석 의원(재선·서구갑)과 '검수완박(검찰수 사권 완전 박탈) 정국에서 탈당한 '처럼회' 출 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(광산을)을 들 수 있다.

송 의원은 친명(친이재명) 일색의 당 지도 부 쇄신 차원에서 진행중인 주요 당직자 교체 작업의 일환으로 호남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의 자리를 대신 꿰찰 것으로 보인 다. 임 최고의 사의는 지난 24일 수용됐고, 송 최고위원 선임 여부는 금명간 결정될 예정이 다. '민주당의 길' 멤버로 비명계인 송 의원은 지난해 최고위원 선거에서 득표율 9.09%로 탈 락한 바 있다.

탕평을 통해 비명계와 텃밭 호남을 동시에 껴안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일각 에선 송 의원이 광주시당위원장일 당시 치러 진 3월 대선에서 보수후보가 광주역대 최다득 표율을 올린 점과 6월 지방선거 '공천 참사'와

역대 최저 투표율(37%)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고위원행에 반기를 들

송 의원은 "이래도 고민, 저래도 고민"이라 며 옹색한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송 의원 지역 구에 출사표를 던진 입지자들은 당의 최종 결 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.

민형배 의원의 복당 여부도 관심사다.

'검수완박 법안은 유효하다'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으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한 만큼 복 당은 시간 문제 아니겠냐는 분석이다. 민 의원 스스로 "거취를 논할 시기는 아니다"고 밝혔고 '복당 논란'이 자칫 계파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 도 없진 않지만, '희생 탈당'이라며 "복당을 허 용해야 한다"는 당 안팎의 여론도 커지고 있

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탈당 1년이 지난 4월 중 복당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 의 요청이 있을 경우 탈당 1년 안에도 가능해 "복당이 임박했다"는 관측도 나온다. 광산을 출마를 염두에 둔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분주 해질 전망이다.

선거제도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.

국회는 정치개혁특위가 제안한 3가지 안건 을 놓고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 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. 선거제도 개 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원위가 열 리기는 20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정개특위 3대 안은 ▲도농복합 중대선거구 제+권역별·병립형 비례대표제 ▲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+전국·병립형 비례대표제 ▲소선 거구제+권역별·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다.

중대선거구가 도입될 경우 승자 독식과 양 당 독재로 인한 지역구도의 폐단이 사라질 것 으로 기대되나,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여서 혁신적 변화 가능성은 미지수 다. 선거구 획정은 이보다도 관심이 덜해 9월 이나 10월께나 변화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

2024총선 광주시민연대는 지난 23일 출범 식에서 "선거제를 개혁해 거대 양당 기득권 독 점 정치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활성화시켜 정 치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"며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세비총액 동결, 국 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.

공천물도 변수다.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'총 선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지어야 한다'는 당 헌에 따라 공천제도 태스크포스(TF)를 본격적 으로 가동했다. 공천제도 TF단장은 비명계 이 개호 의원이 맡고 있다.

현역 의원 평가방식을 비롯해 감점은 공천배 제에 준하는 20%를 일괄 적용할지, 지역특성 을 감안해 차등 적용할 지, 경선 인원은 몇 명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, 임기 중 출마 지자체장에 대한 감산비율과 예외 조항 등 민감한 쟁점들 이 적잖아 지역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.

여러 변수와 맞물려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모집 경쟁도 4월부터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.

각종 여론조사에서 20% 안팎의 광주권 지 지율을 얻고 있는 국민의힘과 중대선거구제로 의 개혁을 절호의 기회로 보며 노동자, 서민, 청년들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는 진보당과 정 의당 등 군소정당들의 행보도 분주하다.

지역 정가 관계자는 "민주당 당 대표 리스크 와 맞물린 지역 현역 의원들의 거취문제와 함 께 선거제도, 공천 룰,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분 당 가능성까지 여러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흘 러 가느냐에 따라 입지자들이 급정거할 지, 보 폭을 넓힐 갈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"고

김재환기자

"자녀 나이에 '0'붙이면 월 학원비" 사교육비 부담 '곡소리'

"학원비는 자녀 나이에 '0'붙이면 얼추 계 산돼요. 초등학교 1학년(8세)이면 월 80만 원, 2학년(9세)이면 월 90만원 이렇게요."

2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필수 과목 '국영수'에 예체능 학원까지 등록하게 된 학부모들은 최근 몇달 사이 부담이 커졌 다고 토로한다.

학부모 A씨는 "아이가 5학년인데 한달 교육비로 120만원을 지출한다"며 "못해도 700만원 이상은 벌어야 할 것 같다"고 한 숨쉬었다.

통계청이 발간한 '2022 한국의 사회지 표'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 조원으로 전년 23조4000억원 대비 10.8% 증가했다.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는 41만원으로 전년보다 11.8% 늘었다.

학부모들은 개학을 앞둔 최근 몇 달 사 이 사교육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 체감 폭이 더욱 크다고 입을 모은다.

C씨는 "돈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지인 도 아이 셋 학원비가 큰 폭으로 올라서 막 내 영어학원부터 옮긴다더라"고 적었다.

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선 "10% 이상은 다 올리는 것 같 다", "월급은 3%, 학원비는 10% 이상 오르 니 학원비 인상 폭이 훨씬 크다", "학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다" 등 반응이 나왔다.

맞벌이 부모의 경우 학원이 사실상 돌 봄 기관 역할을 하는 만큼 선택이 아닌 필 수여서 고충이 더욱 큰 모양새다.

D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"우리나 라 사교육은 단순히 교육 목적이 아니다"라 며 "맞벌이하면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으니 학원을 하나라도 더 보내게 된다"고 밝혔다.

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 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 기 위해선 양질의 돌봄 정책을 공급할 필 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.

시민단체 '사교육걱정없는세상'의 구본 창 정책대안연구소장은 "방과후·돌봄교 실 뿐 아니라 정규 수업도 코로나 국면에 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"며 "위드 코로 나 국면으로 완전 전환됐으니 공적 돌봄 체계가 얼마만큼 양질로 공급되는지 여부 가 관건"이라고 설명했다. 최이슬기자



'벚꽃 산책'

26일 오후 대구 동구 금호강변 둔치에서 시민들이 벚꽃길을 산책하고 있다.



문화체육관광부 |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



K-컬처의 시작, 왕인의 빛 영암왕인문화축

Wangin Culture

3.30(목)~4.2(일) 전남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일원

개막행사 'K-컬처의 시작, 왕인의 빛': 3. 30.(목) 19:00 / 왕인박사유적지 주무대



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: 061)470-2346~50

영암군청 문화관광과: 061)470-2259 영암군홈페이지: www.yeongam.go.kr K-컬처, 왕인! 왕인 어린이 독서골든벨

왕인 천자문 월드 · 북카페 '왕인의 숲'

· 플로깅 역사투어 '왕인산보(散步)' · 박사왕인 행차길놀이

· 외국인 미션투어 '헬로 왕인' · 글로벌 왕인투어 '어서와~ 영암은 처음이지?'

K-웰니스, 영암

영암 전통 민속놀이

· 오감만족 힐링 체험

왕인의 숨결! 영암 문화 체험

· 구림벚꽃길 걷기대회 · 구림마을 자전거투어

· 구림마을 벚꽃여행 · 氣찬영암 관광투어

· 영암 푸드·쇼핑랜드

대표프로그램 테마퍼레이드 'K-레전드,

> **4. 2.**(일) 14:00~15:30

왕인의 귀환'

상대포역사공원 →구림마을 → 왕인박사유적지

야간문화행사

3.30.(목) 19:30~21:00 개막 특집방송 'K-트로트 콘서트' 3. 31.(금) 국립공원월출산 생태탐방원 영암 유치기원 음악회 19:00~21:00 3. 31.(금)~4. 1.(토) 구림마을 달빛야행

4. 1.(토) 20:00~21:00 **4. 2.**(일) 18:00~20:30

19:00~20:00 달빛 디제잉파티 '新난파진가'

3. 30.(목)

왕인로 빛의 정원

빛을 품은 구림마을

★ www.왕인문화축제.kr
▶ 왕인문화TV



